

생산자 물가 10년만에 최고 상승률

7월 중 전년보다 12.5% 올라

공산품, 전력·가스, 서비스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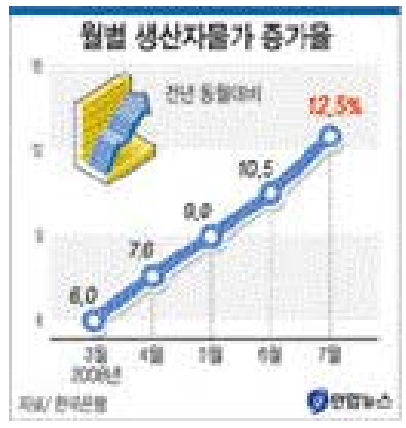
생산자물가가 국제 원자재가격 공백행진 등으로 10년만에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7월 생산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총지수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2.5%가 올라 지난 1998년의 12.8% 이후 가장 높은 오르폭을 나타냈다. 총지수의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은 4월 7.6%, 5월 9.0%, 6월 10.5% 등이었다. 총지수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1.9%로 6월의 1.6%에 비해 높아졌다.

분야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은 공산

품이 17.9%로 전월의 15.2%보다 올라갔고 전력수도가스는 4.4%에서 4.6%로, 서비스는 2.3%에서 3.2%로 각각 높아졌다.

윤재훈 한은 물가통계팀 과장은 "국제유가가 지난달 중순 이후에 떨어지기 시작했으나 지난달 평균 유가는 전월보다 2.7%,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는 88.4% 올랐기 때문에 생산자물가가 높았다"면서 "8월에는 국제유가 하락세가 제대로 반영돼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목품별 전년 대비 상승률을 보면, 서비스 분야에서 국내항공여객료가 31.8%나 났고 연안여객료 17.9%, 국제항공여객료 11.7%, 항공화물운임 17.1% 등이었다.

여관숙박료는 5.0% 올랐고 건축설계 감리비는 3.1% 상승했다.

음식료품에서는 사이더 11.4%, 맥주 5.9%, 참기름 12.9% 등의 상승률을 나타냈고 금속제품에서는 열연강재 21.5%, 냉연강재 23.1%, 아연도강판 22.1% 등의 오르폭을 각각 보였다.

채소류는 더운 날씨로 출하가 줄어들면서 비교적 높은 가격 상승률을 나타냈다. 상추가 전월보다 51.2%나 뛰었고 오이 28.9%, 양파 19.0%, 토마토 14.2% 등의 폭으로 올랐다.

수산식품에서 넉치는 51.8%, 조기는 21.1% 각각 상승했다.

계절적 영향으로 닭고기 가격은 27.7% 뛰었으나 돼지고기는 11.3%, 쇠고기는 3.8% 각각 하락했다.

국내 완성차 수출 6개월째 ↓

5개사 7월에도 6.6% 감소한 18만여대 그쳐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자동차 수출량이 올 2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업체 5개사의 지난 7월 수출량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6% 감소한 18만9천956대를 기록했다. 다만 르노삼성인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인 QM5의 해외시장 판매 호조로 작년 7월보다 259.6%나 수출이 늘었고 기아차도 프라이드와 씨라토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16.4% 수출량이 증가했다.

월별 수출량은 올 2월부터 감소세를 이어 왔으며, 올 1~7월 누계 수출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0% 감소한 162만323대였다고 협회측은 밝혔다.

수출액으로만 보면 지난 7월에는 40억달러 가량의 차량이 팔려 작년 동월보다 5.3% 늘었으며 1~7월 수출액은 307억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8.5%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5대 수출대상국 순위는 미국, 러시아, 캐나다, 칠레, 호주 순이었다.



피서객 인기 담양 부채

8일 담양군 대나무박물관을 찾은 관광객들이 죽제품 판매장에서 부채와 죽부인 등 여름철 피서용품 고르고 있다.

“고유가 영향, 8~9월에도 지속”

강만수 장관... 시장 자율 인하여 여건 조성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두바 위기가 아예 116달러까지 떨어졌고 한 때 부설당 12달러였던 밀 가격이 7달러까지 떨어지는 등 원자재 가격이 작년달 대비 하락했다”면서 “그러나 고유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8~9월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격히

오르기 시작한 2006년 말 이전 가격으로 돌아가는 쉽지 않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강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물가 상승세는 쉽게 꺾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최근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내림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기업 등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인하 여건을 조성해나가기로 했다.

7월 카드 사용 26조 올 최고 기록

경기침체 불구 전년보다 23% 급증

불황 지속엔 연체를 상승 우려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소비는 20%대의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8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들어 7월까지 국내 신용카드 사용액(현금서비스 제외)은 172조21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0.86% 늘었다. 7월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작년 동기 대비 22.86% 급증한 26조4천100억 원으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신협회는 카드 결제금액이 늘어난 주된 인에 대해 생필품 가격이 올라 명목 사용금액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9% 급등해 10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식료품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구입하는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7.1% 급등했다.

신항목 상생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생필품 수요와 소득층의 고가품 소비가 줄지 않으면서 카드 결제금액이 증가했다”며 “경기침체로 가계의 현금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카드소비 비중이 늘어난 것도 한몫했다”고 설명했다.

카드사들이 무이자 할부와 포인트 적립 등 각



종 혜택을 제시하면서 고객 확보경쟁을 벌인 것도 결제금액 급증에 기여했다.

여신협회는 “결제수단으로서 신용카드에 대한 선호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데다 물가가 오르면서 각종 혜택이 있는 카드 사용빈도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무이자 할부 혜택을 이용한 카드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는 이들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카드사의 연체율은 낮은 것도 한몫했다”고 설명했다.

휘발유값 1,700원대 ↓ ‘초읽기’

국제 유가 3주째 하락 주유소 판매가 현실화

국내 주유소 판매 휘발유 가격이 8월 1천700원대 진입의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바로 한 달 전쯤 서울에서 8월 2천원대까지 치솟는 고공행진을 벌이던 모습과는 판판이다.

시장 분석가들은 현재의 국제유가 및 국제석유제품 하락추세가 이어지는 등 돌발변수가 없는 한 이른바 이달 셋째 주까지는 주유소 내로 휘발유 판매가=8월 1천700원대’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8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가격은 8월 1천852원으로, 지난 주보다 8월 45.3원 떨어졌다.

이는 지난날 16일 8월 1천950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2일 만에 8월 98원(5.0%) 급락한 것이다.

아울러 국제 휘발유 현물가격이 6일 배럴당 116.08달러로 4월말 수준으로 급락함에 따라 국내 휘발유 가격이 추가로 떨어질 전망이다.

국내 휘발유값은 싱가포르에서 거래되는 국제석유제품 현물가격에 연동해 움직이며 보통 국제석유

제품의 가격변화는 1~2주 가량의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망 페트넷에 따르면 싱가포르 현물시장에서 거래된 국제 휘발유(옥탄가 92 기준)가격은 지난 7월4일 배럴당 147.3달러로 사상 최고치에 달했다.

반면 국내 주유소 판매 휘발유값이 최고치(8월 1천950원)에 도달한 것은 2주 가량 뒤인 7월16일이었다. 이후 국제 휘발유값은 7월16일 배럴당 137.11달러로 5월 말 수준으로 떨어진 데 이어, 7월29일에는 배럴당 124.03달러에 거래되며 5월 초순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에 맞춰 국내 휘발유 주유소 판매가격도 대략 2주의 간격을 두고 떨어져 7월29일에는 8월 1천902.25원으로 6월 수준을 나타냈으며, 지난 3일에는 8월 1천865.13원으로 5월 말 가격으로 하락했다.

전문가 관계자는 “국제석유제품가격과 국내석유제품가격과의 상관관계를 감안할 경우 이달 안으로 국내 휘발유가격은 8월 1천700원대로 내려앉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동산종합평가의 지부실! **대중법률경매(주)** T.062)227-6666 011-646-2226

지역	소재지	면적(㎡)	총	건평	최저가	위 치
경기	안양동	208/773	4층	407㎡	324천	신곡역
경기	안양동	149/257	4층	293㎡	198천	신곡역
경기	안양동	274/1076	5층	543㎡	499천	신곡역
경기	안양동	129/294	4층	492㎡	238천	신곡역
경기	안양동	580/259	6층	114㎡	789천	신곡역
경기	안양동	472/1552	5층	13㎡	538천	신곡역
경기	안양동	2786/8829	4층	100㎡	49㎡	신곡역
경기	안양동	100/132	2층	292㎡	192천	신곡역
경기	안양동	528/673	4층	892㎡	391	신곡역
경기	안양동	188/774	5층	593㎡	199천	신곡역
경기	안양동	134/298	3층	267㎡	193천	신곡역
경기	안양동	204/559	4층	492㎡	395천	신곡역
경기	안양동	451/1180	4층	101㎡	791	신곡역
경기	안양동	407/866	4층	129㎡	595천	신곡역
경기	안양동	587/1697	4층	163㎡	794천	신곡역
경기	안양동	1322/2205	4층	429㎡	298천	신곡역
경기	안양동	210/615	3층	494㎡	193천	신곡역
경기	안양동	824/319	1층	393㎡	198천	신곡역
경기	안양동	1292/513	2층	191㎡	692천	신곡역
경기	안양동	92/100	1층	191㎡	829천	신곡역

대승공인중개사 062)954-7700, 010-9468-7959

수완지구

아파트 분양권 거래 전문

- ▶ 수완지구 333-1(범의변경가) 60미터 대로변 상업용지, 3면도로
- ▶ 주차장인접 720㎡ 3.3㎡당 600만원
- ▶ 수완지구 아파트 밑집지의 정문 입구 상업용지 500㎡ 190만
- ▶ 광안구 수완동 35㎡ 대로변 자연녹지 1.762㎡ 4,231㎡ ㎡당 70만(분할)
- ▶ 광안구 선암동 대지 374㎡ ㎡당 30만원 주거지역 (건물없음)
- ▶ 광안구 신촌동 광안대로변 지하형역 앞 상업용지 대지 286㎡ 매가 2억 9,000만
- ▶ 광안구 지동동 (묘지) 643㎡ ㎡당 28,000원
- ▶ 광안구 지동동 산 8,596㎡ ㎡당 28,000원 현재 전으로 사용 1.6km 직선거리 도로변
- ▶ 광안구 유계동 대지 3,300㎡ ㎡당 41,000원
- ▶ 광주 북구 동남동 6차선 대로변 대지 1,533㎡ 3.3㎡당 480만원
- ▶ 광주 서구 유촌동 생산녹지 4,000㎡ 30㎡ 계획도로 90㎡ ㎡당 24만원
- ▶ 남양주 주399단지 1,500세대 정문앞 마임실 (현재 상업용) 급매에 2255 (상용수20)
- ▶ 매대개(여) (용 8,000인원)
- ▶ 은남동 주399단지 PC방 183㎡(시비 있음) 매대개(여) 3천만원

노블메디컬센터 임대분양

▶ 수완지구 중심상권
-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5,000㎡
- 1층 : 약국, 전시장, 인접점, 부동산, 이동통신
- 2~5층 : 병의원(내과, 소아과, 안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등) 임대(중/중수 다중)
- 원내 지하주차장 및 원외 주차장(설치)로 주차공간 100% 확보

★ 1층 파리바게뜨 임점확정
2층 파파존스 피자 임점확정
6~8층 : 치과병원(임플란트 전문) 개인 확정

▶ 수완지구 용지매매 및 개발상담 ▶
광주·전남지역 주유소·충전소 거래 전문

합동공인중개사 011-646-3393 010-8675-6200 (광산구 우성동 1605-3 해남시영8 2단지)

수완지구 4000세대 독점상권

아파트 상가 매매 및 임대

입점시기
2009년 3월 ~ 12월 (지금 준비하십시오)

권장업종
마트/제과점/미용실/세탁소/문구점/피자/김밥나라/청과/정육/차니프/떡집/건강원/안경점/편의점/학원/병원/약국

평수
60평/40평/25평/13평/9평

매매가
7000만원 ~ 8억 2000만원

임대가
3000만원 월세 80만원
2억 원 월세 300만원
보증금과 월세 전화 조정 가능함.

대금납부 방법
계약금 지불 후 상가 입점 시 잔금납부, 용지가 가능함.
방문상담 환영합니다